



## 생각하면서 쓰라, 쓰면서 생각하라.

‘일필휘지(一筆揮之)’라는 말이 있다. 붓을 한 번 휘둘러 단숨에 글을 써내려간다는 뜻. 선현들은 글의 전모를 머리에 이미 담아 두고 있었던 듯, 시작하면 곧 끝에 이르는 이런 글쓰기를 수월하게도 했던 모양이다. 아마도 습관적인 독서 경험과 대상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그 바탕에 있어서 이들에게 ‘글’은 그야말로 사유의 최종 단계 곧 ‘표현’ 그 자체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요컨대 글을 쓰기 전 이미 생각은 완성되어 있는 상태였던 셈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일필휘지’하고 있으리라. 사실 이 글을 쓰는 이도 그런 이들이 부럽다. 한 번도 그렇게 글을 써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업으로 삼은 만큼 그럴 수만 있다면야 천만금이 아깝지 않겠다. 그러나 이미 생각을 끝내고 글을 쓴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저명한 소설가들이 자신이 창조한 작중 인물이 어떤 운명을 가질지 모르겠다고 고백하거나 성실한 연구자가 세심하게 배려한 개요 전체를 뒤엎고 새롭게 논문을 구상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흔한 일화다. 생각하면서 쓰고 쓰면서 생각하는 경우다. 이렇듯 글쓰기에 착수했으면서도 그 끝을 종잡을 수 없게 이끌고 가는 것은 어쩌면 글을 쓰는, 써야 하는 사람에게 저주에 가까운 일이기도 할 것이다. 역시나 글쓰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글쓰기를 포기할까? 그것도 용이치 않다.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저 딱딱한 사유의 검은 바다로 돌아간다.

많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글쓰기에 있어서의 이런 수월함과 지난함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다. ‘일필휘지’의 재능은 이제 서예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까, 현대의 글쓰기에서 ‘일필휘지’ 운운하다가는 애써 쓴 글이 미숙한 스케치 정도로만 평가절하될 뿐이다. 필자의 일천한 경험이란 하겠지만 ‘일필휘지’한 글은 대체로 미숙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글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현대에는 종잡을 수 없는 결론으로 치닫는 개방형 글쓰기가 독자의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대화형 글쓰기

● ● ●  
류 한 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로, 저자 스스로 글쓰기 행위를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과정 중심의 글쓰기로 각광받고 있다. 요컨대 글쓰기는 사고의 최종 표현 단계이기도 하지만 그와 달리 그 과정을 통해 사고가 진척되는 사고 진행 단계이기도 하다. 글을 쓰면서 자기 사유의 근원에 골몰하고 그 현재 상태를 펼쳐보며 최종적으로 그 향방을 가늠하는, 이른바 과정 중심 글쓰기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현재 글쓰기 교육에서는 이런 점을 점점 더 중시하고 있다.

글은 사유의 결과를 드러내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사유의 과정을 담아내는 하나의 이야기에 가깝다. 사유의 결과만을 언뜻 보여주고 이를 강요하는 글은, 그 안에서 글쓴이의 자기 과시만을 확인하게 되어 독자를 피곤하게 한다. 이는 저자 자신에게도 시간 낭비다. 이런 저자는 글쓰기 자체가 자기 반성의 기원이며 새로운 창조적 사고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물론 때로 천재적인 저자의 직관적 아포리즘이 대상의 비밀을 엿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발견’하고 ‘일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은? 그대가 쓰고자 했고 우리가 읽고자 하는 것, 쓰고 읽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일별’이 아니라 ‘응시’이자 ‘관찰’이다. ‘일별’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다. 대상의 비밀을 보고 난 후인데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런 ‘일별’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대상의 비밀을 응시하고 관찰하여 우리 삶에 변화의 기미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글쓰기(글읽기-저자는 최초의 독자이다)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말을 채찍질하여 가는 와중에 간간히 보이는 풍경은 그냥 풍경일 뿐이다. 아름다운 풍경이든, 보듬어야 할 풍경이든 말머리를 돌리게 하지 못한다면 애당초 눈조차 돌리지 말 일이다. 그저 달리면 될 뿐이다.

‘응시’와 ‘관찰’은 세계를 이해하려는 가장 기초적인 노력이다. 로버트 루벤스타인과 미셸 루벤스타인은 『생각의 탄생』(박종성 역, 에코의서재, 2007)에서 생각을 키우는 데 유용한 13가지의 생각도구를 소개하면서 먼저 다음과 같은 스트라빈스키의 말을 인용한다.

창작의 전제는 상상이지만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창작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운 좋은 발견이 필요할지도 모르나, 이 발견을 온전히 현실화하는 것이 창작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를 지녔다고 할 수 없으며 실체를 가진다고도 볼 수 없다. 하지만 창작은 실행과 분리해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법. 고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창조적인 상상이다. 그것만이 우리를 관념의 단계에서 현실의 단계로 나아가게 해줄 것이기에.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음악의 시학」 중에서<sup>1)</sup>

1) 로버트 루벤스타인·미셸 루벤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 역, 에코의서재, 2007, p.11.



이 글에 뒤이은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생각도구’가 바로 ‘관찰’이다. 여기에서 ‘창작’을 ‘글쓰기’로 바꾸어도 마찬가지다. 글쓰기(글읽기)는 ‘관찰’의 과정을 세밀히 기록하는 것이다.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일별’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것들을 선별하고 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각적으로 인지된 것들이 우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사유의 시초가 되며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반성의 제일원인이 되면, 그것이 바로 지식이자 지혜다. 우리가 글읽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글쓰기 역시 이와 마찬가지여야 한다. 내가 일별한 대상의 비밀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만을 말하고 정작 그 비밀을 풀어헤쳐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친절한 글쓰기일 뿐만 아니라 아주 오만한 글쓰기이기도 하다. “이 대상도 중요하고 그 비밀도 중요한데 내가 밝혀낸 것은 이것이니 당신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라고 묻는다면, 독자는 당장에 기본이 상해서라도 잠시나마 고개를 돌린 것까지 후회할 것이다. 좋은 글은 대상의 비밀과 어떻게 마주쳤는지, 대상과 그 비밀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다른 이들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밝힌 비밀은 무엇이고 그 가치는 무엇 인지를 꼼꼼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말머리를 돌려 그에 대해 다시 묻고 따지고, 다시 보고 듣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어두운 암흑에서 갈피 못 잡는 비밀의 문을 열고 새로운 세계로 한걸음 나아가지 않겠는가.

기존의 글쓰기 분야에서 오랫동안 통용되던, 즉 ‘일필휘지’의 기운이 여전히 우리의 무의식에 남아 있던 동안에는 “명확한 사고에서 명확한 글이 나온다.”라는 말이 이 업계의 통설이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여전히 여전하다. 글쓰기 교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고민 역시 대부분 이런 무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글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든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개요를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겠다든지, 글을 다 썼는데 막상 읽어보니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든지 하는 등의 고민은 사실 고민이랄 수도 없다. 누구나 다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곧 글쓰기 과정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은 글쓰기를 통해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無知)의 지(知)’에라도 이르고 있으니 앞서 말했듯 말머리를 돌린 셈이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다. 조셉 윌리엄스는 앞서 말한 통설과는 다른 주장을 펼친다. 그가 쓴 『논증의 탄생』<sup>2)</sup>은 “명확하게 글을 쓰는 과정에서 명확한 사고가 형성된

2) 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클럼, 『논증의 탄생-글쓰기의 새로운 전략』, 윤영삼 역, 홍문관, 2008.



다.”라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책이다. 이런 과정 중심의 글쓰기야말로 글쓰기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다. 작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글을 쓸 수 없다고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리스의 에게 해 동쪽에 로두스라는 섬이 있다. 제1차 십자군 전쟁의 연전연승에 고무돼 자신들의 공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십자군 일부가 자만심으로 이후의 원정 동안 벌어진 전쟁에서 패해 이스라엘 땅에서 물러나와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역습을 도모했던 곳이 이 섬이다. 이슬람 우화에서 사람들이 허풍쟁이에게, 그리고 『자본론』에서 마르크스가 “여기가 로두스다. 자, 여기에서 뛰어보라”라고 했던 바로 그 로두스다. 글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글을 완성한 그 순간 내가 읽는 내 자신의 글이 바로 나의 로두스다. 거기에서부터 뛰어야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글쓰기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그 끝나지 않는 허황된 감정을 위로하는 것은 글을 쓰는 행위 그 자체”라고 말한바 있다. 어차피 당신의 글은 끝나지 않는다. 그저 생각하면서 쓰고, 쓰면서 생각하라. 그 반복하는 글쓰기 행위에서 생성되는 차이의 누적이 바로 당신 사유의 깊이이다.